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2년 연속 우수기관상 수상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대회 '우수
지단체 최우수 이어 올해 우수 선정
현장 연계 동물방역·위생 성과 인정
연구 포스터 3편도 우수·장려상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 분야의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48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상은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의 동물방역·축산물위생 분야 연구 논문과 학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최우수기관상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기관상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리 세포바이러스와 조류병원성 대장균의 혼합감염 사례, 전북지역 유기견 보호소의 개 파보바이러스 및 주요 바이러스성 병원체 유병률 조사 등 현장과 연계한 연구성과가 우수기관 선정에 힘을 보탰다.

또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종계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항체가 조사 ▲도내 양봉농가 꿀벌병에의 플루발리네이트 저항성 분석 ▲오리 세포바이러스 1·2형 동시 검출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진단법 적용 등 시험연구사업 포스터 3편을 발표해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수상했다.

한국동물위생학회는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10개 수의과대학,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 공중보건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보 교류를 위해 학술



<사진=전북도>

발표대회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등 현안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해 전북 축산업의 경쟁력과 방역·위생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판매업체·음식점 200개소 점검
제수·선물용 원산지 집중 단속
수산시장 6곳 안전관리 확인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내 수산시장 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시장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원양산·수입산과 가공품 등 총 318개 품목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와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음식점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생물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은 도 수산정책과를 중심으로 14개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부안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수산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운영 실태 등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 사항은 즉시 시



<사진=전북도>

정하도록 해 명절 기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국 “나를 공격,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도움 안될 것”

“충정으로 대안제시하니 오물 투척”
李 公選법 재판 관련 비판에 반발
박지원·박선원 의원 발언 정면 반박



조국 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 4일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

한다”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면서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 신호

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

며 오물을 투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조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애들러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비난했고, 박선원 의

원은 “배은 망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은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 대통령이 처한 문제해결에도 국정지지를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그리고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등 각을 세웠다.

/서울=김영목기자

김승원 “식약처 승인되면 수천억 버는 거잖아”

한동훈, 김승원 청탁 녹취 공개
“이게 공익민원 해결이냐” 압박
“제넨셀 파악해달라” 정황 담겨



김승원 후보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일 식약처에 임상승인 청탁을 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유형업소를 운영하는 브로커 양모씨와의 2021년도 녹취록들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에게 공개질의한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브로커 양씨는 2021년 9월 14일 전화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오빠, 강세찬 교수님이 지금 비공식으로 코로나 3상에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 말씀은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왔고 프로토콜만 문제되는 거예요”라면서 도움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이어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빠네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제넨셀 최대주주예요. 이제 그 회사가 코로나 회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큰 투자 회사가 붙었고. 이거 자금화,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도 채널 만나는 건 조심하고 있고. 곧 상장사 대표될 사람 자금 융통도 원활하게 될 사람이고.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양씨는 며칠 뒤인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에게 “오빠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 건이예요”라면서 “지금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담당자 변경도 있고 해서 원래 12일인가 8일인가 결과치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늦춰

지나봐요”라고 식약처의 임상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 만들어진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냐면 여기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되어 있어요”라며 “10월 15일 돈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1안은 오빠가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시간이 되면 봐요”라고 말했다. 2안은 식약처 이거 제넨셀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라고 부탁했다.

이같은 양씨의 부탁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 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면서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아야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한 번 보자. 국감 중이라 좀 바쁘긴 한데 서울에서 보면 되잖아”라고 청탁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후보자는 서영교 의원 등을 통해 청탁을 했고, 식약처장은 임상승인을 해줬으나 최종적으로 임상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 관계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수많은 게이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

/서울=김영목기자

道, 지니포럼 연계 핀테크 스타트업 워크숍 열어

전북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과 금융혁신 공유오피스에서 도내 유망 핀테크·금융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제7회 지니포럼과 연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벤처창업·빅데이터·공유오피스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도내 금융혁신 스타트업 14개사가 참여했다.

첫날인 3일에는 금융기관 및 전문투자기관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비즈 미팅(Meet-up)’과 투자유치를 위한 ‘핀테크 IR 데모데이(Demoday)’가 진행됐다.

비즈 미팅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KB금융, JB인베스트먼트, JB기술투자 등

금융·투자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IR 데모데이에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성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우수 기업에는 우리금융그룹의 우선투자검토권을 부여하는 등 후속 성장 기회도 제공 예정이다.

4일에는 금융혁신 공유오피스에서 스타트업의 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유희숙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도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에어컨 작동시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이상) 환기하기

전기사용이 많은
오후2~5시 전기사용 줄이기

실내 적정 온도
26도

커튼과 블라인드로
직사광선 차단하기

전북도, 군산 수산현장 찾아 현장소통

비용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개장 준비상황 점검 및 어업인 애로사항 청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군산 비응항 저온·친환경 위판장과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수산물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살피고 어업인 및 임주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먼저 비응항 저온·친환경 위판장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개장을 앞둔 운영 준비상황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비응항 위판장 현대화 사업은 기존 선어·활어 위판장에 저온·친환경 위판체계를 도입하고 저빙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5억9천만원을 투입했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저빙 수용능력이 344톤 늘어나 수산물의 위생·품질 관리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북자치도어촌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어촌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어촌계 관계자들은 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을 건의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예산과 해양수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오후에는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현장을 찾아 비응항 인근에서 취수한 해수를 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해수인·배수시설과 배출수 정화시설, 내부도로 등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추진상황을 살폈다.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4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에는 마른김·조미김 기업 6개사를 포함해 총 11개 수산식품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도는 수산물 가공부터 유통·수출까지 연계하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 전북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도는 임주기업인 ㈜화우당도 방

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원료 수급과 제품 생산, 판로·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산물안전센터도 방문해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위판장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새만금 수산식품단지를 중심으로 가공과 수출을 아우르는 산업 기반도 갖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전북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완주 고산농협>

완주 고산농협 ‘농심천심 특별상’ 수상

농협 창립 제65주년 맞아 농촌 가치 확산 공로 인정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이 농협 창립 제65주년을 맞아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적극 동참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심천심 특별상을 수상했다.

농심천심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운동이다.

고산농협은 농업인을 위해 영농기술 교육 및 농작업 대행과 공공형

계절근로 등 영농지원을 확대하고, 스콜팜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농업의 가치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며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농촌 일손돕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손병철 조합장은 “이번 농심천심 특별상 수상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온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존중받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정읍시, 여성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10일 미니취업박람회 일대일 면접 진행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현장에는 이재주세무회계사무소와 주식회사 식각, 사단법인 더마루, 동행요양원, 손길노인복지센터 등 구인기업 5곳이 참여한다.

각 기업은 채용 조건과 업무 내용을 안내하고 구직자와 일대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직자들은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직접 면접에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취업 준비와 진로 탐색을 돕는 지원

도 마련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 정읍시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이력서 작성과 창업 상담, 전문직성검사 등을 제공한다.

직업교육 훈련생들의 재능 나눔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진 촬영 체험 공간도 운영해 행사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새일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역량과 진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여성의 취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새일센터는 지역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 여성 구직자에게 폭넓은 고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성문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읍시>

특히 집단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해당 센터가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복지 연계 실적’ 우수센터 장려상을 받는 데 힘을 보탤다.

/정읍=김정민 기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광역자활센터, 도시농업 확산 협력

자활사업 연계 통해 현장 확산 계기 마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지난 3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도시농업 체험모형(모델)·자원(콘텐츠)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다양한 도시농업 기술과 관련 자원(콘텐츠)을 자활사업과 연계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활기관은 저소득층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 능력 향상을 돕는 지원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도시농업 체험 모형(모델)의 현장 기술지원과 자원(콘텐츠) 제공을 맡는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이를 활용해 자활특화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학교 사업을, 군산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도시농업 체험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농업 기술을 지역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자활사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자활사업이 연계돼 사회적 가치를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광역자활센터와 지난 3일 본원에서 ‘도시농업 체험 모형·자원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농촌진흥청>

LX공간정보아카데미, 8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 인재 양성 요람 인증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국토정보교육원(원장 김진성) 산하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2026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 오브 챔프(Best of CHAMP) 시상식’에서 최우수(S등급) 공동훈련센터로 8년 연속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인재 양성 계획에 맞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무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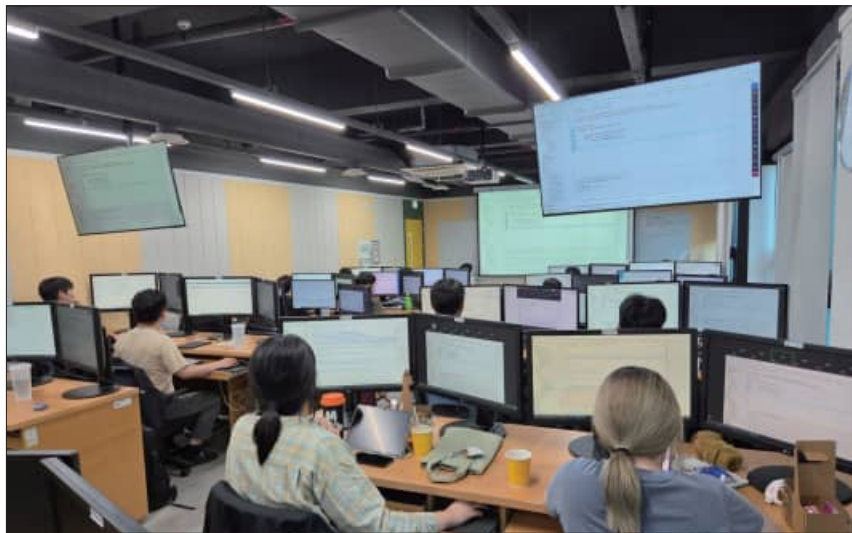
현재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재직자 역량 향상 과정’과 ‘채용예정자 양성

과정’을 두트랙(Two-track)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재직자 대상 교육은 오픈소스 GIS는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위성 및 드론 영상 처리 등 최신 IT 기술 동향을 융합한 28개의 맞춤형 과정을 수준별로 제공한다.

또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채용 예정자 과정)’은 실무 중심의 공간정보 및 프로그래밍 교육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진성 국토정보교육원장은 “8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이라는 타이틀은 참여 기업과 교육생들의 목소리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산하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 오브 챔프 시상식’에서 최우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

<사진=LX>

귀 기울이고,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산업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농어촌공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지난 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직원들은 개정지역 아동센터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기부금을 전달하고, 센터 주변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을 세심하게 살피며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승수 사업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기부와 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치유농업으로 시민 마음 돌본다

익산시가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본다.

시는 지난 5일 치유농장 ‘우리들의 정원’에서 꿈마루협동조합 회원 7가족 25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꿈마루 가족 마음꽃 피는 날’을 진행했다.

꿈마루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마을기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에는 회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자연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 가족들은 테라리움의 원리를 배우고 흙, 이끼, 자갈 등을 활용해 ‘가족만의 작은 정원’을 함께 만들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시는 가족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이 정서적 안정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가족 간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는 2024년부터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을 치유농장과 연결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기관과 치유농장 간 협력을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더 많은 시민이 자연 속에서 치유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화 익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치유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일상을 돕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과 지역 치유농장을 연계해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11개 노조, 청렴 실천 ‘맞손’

교원·공무원·공무직 참여... 공정 직무와 갑질 근절 공동 약속 “노사 간 소통 강화”



천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11개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동단체가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북 교육청은 지난 4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11개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사 청렴 공동 실천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교총·전북교사노

조·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 4곳을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 노조 4곳, 교육공무직 노조 3곳 등 도내 교육계 전 직종 노동단체가 모두 동참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직무 수행 △상호 존중과 갑질 근절 △반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청렴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일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노동조합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 미륵사지, 가을밤 수놓은 빛의 대향연

27일까지 첨단 미디어아트

익산시는 지난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 일원에서 시민과 귀성객,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익산 미륵사지’ 개막식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24일간의 화려한 빛의 여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미디어아트는 ‘왕도의 시간, 빛으로 물든 왕도가 깨어나는 시간’을 주제로 백제 최대 사찰 터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입혔다. 미륵사지만의 독창적인 건축 구조인 ‘3탑 3금당’ 공간을 무대로 ‘성시(聖時)·현시(現時)·여시(餘時)’로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간 서사를 웅장하게 펼쳐냈다.

행사장 곳곳에 다채로운 빛의 조형물과 반응형 야간경관이 어우러지며 도심 속 거대한 야외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주말에는 감미로운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비롯해 수공예품 플리마켓, 지역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푸드 트럭이 함께 운영돼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한층 풍성하게 채운다.

메인 미디어아트 쇼는 오는 2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 4회씩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쉬는 날 없이 정상 운영돼,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미륵사지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빛을 느끼며 특별한 감동을 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대, 필터 없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센서 개발

광전류 최대 982% 신호대잡음비 23배 ↑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별도의 광학 필터 없이도 심박수와 혈중 산소포화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무기 반도체 기반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

전북대는 신소재공학부 김정현 박사과정생이 실리콘(3차원) 위에 2차원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이종접적 방식으로 다중 웨어러블 광센서를 구현했다고 오늘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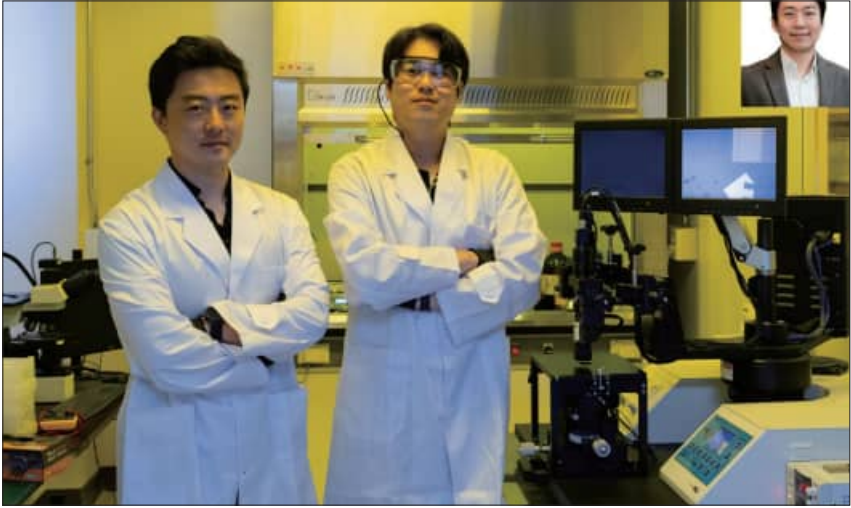
기존 유기 소재 대신 무기 반도체를 활용해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필터 없이도

도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분리 감지한다. 연구팀은 계면 결함 제어를 통해 광전류를 최대 982% 끌어올리고, 신호대잡음비(SNR)를 기존 웨어러블 소자 대비 23배 향상시켰다.

GIST 이한얼 교수와 DGIST 이태훈 교수가 공동 지도한 이번 연구는 공학분야 국제 학술지 ‘eScience’(영향력지수 52.9) 최신회에 실렸다.

김정현 연구원은 “무기 반도체 이종접합 기술로 유기 센서의 신뢰성 한계를 극복했다”며 “차세대 비침습 헬스케어 기기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연구진이 별도의 광학 필터 없이도 심박수와 혈중 산소포화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무기 반도체 기반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고창군 ‘나무섬표’ 목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군민들이 직접 목공을 배우고 나만의 목공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나무섬표’ 목공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목공에 관심 있는 군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목공 기초와 안전교육을 배우고, 준비된 목재를 활용해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며 목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교육은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에서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수별 10명씩 총 20명을 모집하며, 각 기수는 5회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자들은 월넛 트레이, 모로모로 테이블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공 작품을 직접 만든다.

특히 참여자들이 함께 야외 목재 벤치를 제작해 전통예술체험마을에 설치하는 과정도 진행한다. 완성된 벤치는



<사진=고창군>

체험마을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교육을 통해 만든 작품을 지역의 공간과 연결하고, 참여자들의 성취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조창환 상임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나무를 직접 만지고 작품을 완성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미디어와 샌드아트 결합

모차르트의 명작이 환상적인 우주 모험으로 다시 태어나고 미디어와 샌드아트를 만난 특별한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가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김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으로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돼 (주)글든뮤직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가족 오페라다.

우주 폭풍에 휘말려 크리스탈로스 행성에 불시착한 타미노 왕자는 새잡이 파파게노를 만나, 밤의 여왕으로부터 신비한 ‘마술피리’와 ‘마숵종’을 받아 악당에게 사로잡힌 파미나 공주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고 지혜의 행성 아케트에서 펼쳐지는 위험과 시련 속에서 타미노와 파미나는 사랑과 용기를 발견하고 파파게노 역시 운명처럼 파파게나를 만나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사진=김제시>

음악과 영상, 모래가 하나의 이야기로 어우러지며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와 가족 관객에게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관람권 예매는 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나눔문화 확산 나선다

아름다운가게와 상호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재단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하얀양옥집에서 이경윤 대표이사과 아름다운가게 김주형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아름다운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임직원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사용해 자원 재순환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단 임직원 대상 기부 캠페인 및 나눔바자회 공동 추진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임직원 자원봉사자 모집 및 행사 운영 참여 △지원 재순

환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협력 등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재단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도서, 잡화, 생활용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어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 물품으로 내달 23일부터 24일까지 하얀양옥집에서 나눔바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단 임직원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바자회 운영을 지원하고, 기부받은 물품을 재사용해 자원 재순환의 가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회관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정읍시,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정읍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재산 압류와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특별징수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능력을 면밀히 살펴 대상별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압류한다. 부동산을 압류한 뒤에도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재산 처분에 따른 징수 효과를 검토해 공매를 추진한다.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고의적인 세금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에는 별도의 영치판을 투입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한 차례 체납한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문자를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 내역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리틀스타즈 모던함라’ 참가자 모집… 15일까지

익산 함라한옥체험단지가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무대로 변신한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전국 5~10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2회 리틀스타즈 모던함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리틀스타즈 모던함라’는 어린이들이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참가 어린이와 가족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올해는 단순한 경연이나 선발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들이 전통의 멋을 경험하고, 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 연계를 한층 강화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익산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사전 심사를 거쳐 18일 본선 참가자를 발표한다.

본선 진출 어린이들은 10월 3일 한복 예절과 단체 안무 등의 사전교육에 참여한 뒤, 10월 10일 함라한옥체험단지에서 열리는 본 무대에 오른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익산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약사회, 아동·청소년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군산시는 지난 4일 군산시 약사회(회장 강종대)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약사회에서 기탁한 장학금은 군산시와 조목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돌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관내 아동·청소년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된다.

군산시 약사회는 지역사회의 인재 육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이번 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75명의 학생에게 5,8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종대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정부 예산안 1조 3천억 확보

전년 확정액 263억 원 상화…김재준 시장 ‘중앙정부 네트워크’ 결실

군산시의 2027년도 국가예산 1조 3,01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에 반영된 1조 2,421억 원보다 589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전년도 최종 확정액 1조 2,747억 원에 비해 263억 원 늘어난 성과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175억 원, 로봇부품 클러스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 5억 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51억 원이 반영돼 새만금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새만금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기반도 강화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초기 검토액보다 400억 원 늘어난 1,2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신항만 조성 475억 원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50억 원도 포함돼 공항·철도·항만을 잇는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로봇·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는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33.5억 원, 5G 특화망 기반 군산조선소 MAX 실증 플랫폼 50억 원,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문화·관광 분야 사업도 고르게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나운·신평지구 등 기존 계속사업과 함께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와 물순환 축진구역 지정 등이 신규 반영돼 상습 침수지역 정비에

탄력이 붙는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와 근대문화 비엔날레 개최 등이 포함돼 고군산군도와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충에도 힘이 실린다.

이번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된 데에는 취임 직후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논리와 대응 전략을 직접 챙겨온 김재준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뒷받침됐다.

김 시장은 “이번 성과는 기획 단계부터 관계기관을 발 빠르게 오가며 사업 필요성을 설득해 온 직원들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예산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명절 맞이 혜택 ‘풍성’ 2(題)

전통시장 3곳 환급 행사 진행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연지시장과 신대인시장, 샘고을시장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준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커진 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연지시장과 신대인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대인시장은 오늘부터, 연지시장은 오는 14일부터 행사를 시작한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금액을 합산해 5만 원 이상 9만 원 미만이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9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해당 시장 상인회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종료된다.

환급은 농축·수산물 행사당 1인 1회만 가능하며,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2만 원이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환급은 할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어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환급 혜택을 챙기고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명절을 준비하며 지역 상인들과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품미인쇼핑몰, 최대 32% 할인

정읍시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21일간 단품미인쇼핑몰에서 지역 농특산물 190여 개 상품을 최대 32% 할인 판매하는 ‘추석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추석을 맞아 정읍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지역 생산자의 정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농가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정읍 한우와 쌍화차, 귀리, 한과, 멜론 등 지역의 맛과 품질을 대표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가족과 친지,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선물을 구성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 장바구니 할인권(쿠폰) 5매를 지급한다. 단품미인쇼핑몰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적립금(포인트) 5000점을 제공한다.

상품 할인에 할인권과 적립금까지 더해 소비자의 명절 선물 준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기획전 상품과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품미인쇼핑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맛과 생산자의 정성이 담긴 농특산물이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가축방역 ‘우수’ 시군 선정

조류인플루엔자 3년 구제역 8년 ‘무발생’

정읍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년 연속, 구제역 8년 연속 무발생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6년 시군별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주요 방역정책의 이행 정도와 실제 효과를 살펴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을 이끌어 위

한 평가다. 평가는 지역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방역정책의 차별성과 관계기관 협력 정도, 방역 추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읍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FMD)도 8년째

막아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시 발생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큰 제1종 가축전염병 차단 성과를 인정받았다.

축산농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소 채혈 신청용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앱) ‘정읍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가

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게 채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줄였다.

시는 지난 2024년에도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겨울 특별방역기간에도 농가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질병 발생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지역상권 상생 연구용역’ 착수

코스트코 유입인구 활용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의회 지역상권 상생전략 연구회’는 지난 4일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공무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방향과 세부 과업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김미선 의원을 대표로 정원상, 강이나, 박종대, 손문선, 유재구, 이종연, 황두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코스트코 개점에 따른 유입인구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코스트코 개점에 따른 유입인구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접근성 및 이동여건, 관광·문화자원 연계방안, 국내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익산시 실정에 맞는



<사진=익산시의회>

정책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미선 대표의원은 “내년 하반기 계획중인 코스트코 개점으로 익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익산 입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익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가정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가정형(배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관내 589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500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비 100만 원 가운데 8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2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 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6%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민·관·경 협력 ‘지역 안전망’ 촘촘히

익산시가 경찰,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김충영 익산시의회 의장,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익산시장을 위원장으로 유관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치안과 시민 안전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민·관·경 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경찰서의 주요 치안 업무와 현안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와 익산경찰서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안건을 검토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치안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명절 앞두고 어르신 온정 2(題)

남원시, 요양시설 찾아 ‘행복미용’ 선사

남원시와 대한미용사회 남원시지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미용 서비스를 선물한다.

이번 ‘추석맞이 찾아가는 행복미용 서비스’는 대한미용사회 남원시지부가 추석을 앞두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가족을 만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서비스는 이달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총 2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된다.

지난 2일 효성의집 입소자 78명을 시작으로 △8일 평강원 △9일 경애원 및 이웃사

랑노인공동생활가정 △10일 남원소망의문 △15일 보은의집을 차례로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미용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전국에서 보내온 남원사랑의 마음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한미용사회 남원시지부 김태 지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조금 더 단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에게 기분 좋은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이서면, 어르신 500명 ‘사랑에’ 위안잔치

완주군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택균, 소미례)가 지난 4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이서에서 사랑에(愛) 어르신 위안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효(孝)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다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러 세대의 화목을 이끈 어르신들에게 특

별상을 전달했다.

이어 문화공연과 함께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대접해 풍성한 점심을 나눴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수지침 체형과 혈당 측정 등 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잔치는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지역 기관·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 음식 조리와 배식, 행사장 안내 등을 도맡으며 끈끈한 공동체의 정을 나눴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추석 맞아 2주간 예초기 무상점검

점검·날·안전커버 무상 교체
사용법·안전수칙 교육 병행

순창군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2주간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와 북흥·쌍지권역에서 진행되며, 군민은 물론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점검 기간에는 예초기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무상으로 정비한

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예초기 날과 안전커버 등 소모성 부품도 무상으로 교체해 안전한 벌초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올바른 예초기 사용법을 비롯해 작업 전 점검요령, 보호장구 착용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해 안전한 벌초 문화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인과 군민들께서는 벌초에 나서기 전 무상점검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구이농협, 전 조합원 가을배추 모종 무상 지원

완주군 구이농협(조합장 최만열)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을배추 모종 1판씩(128구)을 무상 지원해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가을배추 모종 무상 지원은 조합원의 영농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3년째 이어진 조합원 환원사업이다.

특히 모종(불알플러스, 황금갯배추 등)이 추가로 필요한 조합원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더했다.

최만열 조합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복지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떡류식품협회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맞손’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지역 떡류 식품 산업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3일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전북지회 순창지부와 ‘지역관광활성화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순창 코리아 떡박물관 등 지역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떡류 식품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순창 코리아 떡박물관 등 지역 행사 추진 시 떡류 식품 관련 상호 협력 △관광 정책 및 떡류 식품 사업 관련 정보 상호 교류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시행 △협력 사업 및 모범 사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상호 합의한 공동 발전 방안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운숙 대표는 “이번 협약은 순창의 우수한 발효 문화와 떡류 식품 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춘향장학재단은 지난 3일 ‘2026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여름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캠프의 주요 성과와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캠프 참가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캠프 경과보고와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감사편지 낭독, 수료증 수여, 학생 성과발표 등이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6박 18일간 진행된 캠프의 주요 일정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캠프 전·후 실시한 영어 레벨테스트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변화와 프로그램 만족도 등 캠프의 교육적 성과를 공유했다.

학생 성과발표는 참가 학생들이 3개 조로 나뉘어 △뉴질랜드와 한국의 학교생활 비교 △뉴질랜드와 한국의 문화 비교 △뉴질랜드와 한국의 전통음식 비교를 주제로 진행했다.

각 조는 발표 주제와 연관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17개 가운데 2개 목표를 선정해 발표 내용과 연계했으며, 조별로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릴스 영상도 함께 상영해 캠프에서의 경험을 전달했다.

‘2026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추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이 지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주민배심원단 가동…민선9기 공약 검토

무작위 선별 30명 청소년 6명 참여 토론·심의 거쳐 실천계획 수립

순창군이 민선 9기 공약의 출발점부터 군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본격 가동했다.

군은 지난 3일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주민배심원단 36명을 위촉하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배심원단은 민선 9기 순창군 공약 실천계획을 주민이 직접 심의·평가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군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하여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ARS와 전화면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주민배심원 3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청소년 6명을 ‘청소년 주민배심원’으로 처음 선발해 눈길



<사진=순창군>

을 끌었다. 청소년들은 일반 주민배심원과 함께 군정 전반의 공약을 직접 살펴보고 토론·심의에 참여하며, 군은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시각까지 공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개별 위촉장 수여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기홍 광주전남본부장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을 주제로 한 사전

교육과 분임 구성 등이 진행됐다.

위촉장을 수여한 조광희 부군수는 “군정에 관심을 갖고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군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공약 실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배심원단을 격려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의회, 결산승인안·추경 심사 돌입

예산 집행 성과·불용·이월 점검 신규·중액사업 필요성 집중 검토

완주군의의회(의장 성중기)는 지난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위원회는 결산을 통해 지난해 예산의 집행실적과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는 단순한 예산 집행을 확인을 넘어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반복적인 불용·이월 여부, 본예산과 추경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자치행정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중액사업은 남은 기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와 시급·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추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필수경비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제3회 추경이 또 하나의 본

예산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과 실제 추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얼마를 집행했느냐보다 예산을 투입해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추가적인 군비 부담까지 면밀히 살펴볼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의회는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년로컬외식창업학교 참여자 추가 모집

시장조사·상품기획 등 기초교육 수료 후 창업사업 연계 후속지원

남원시는 남원 청년마루를 통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로컬외식창업학교’ 참여자를 오는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청년로컬외식창업학교는 외식업의 이해를 비롯해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원가 및 판매 가격 설정 △세무 △인허가 △홍보 등 외식 창업에 필요

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아이디어와 창업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후반에는 참여자가 직접 개발한 상품을 실제 고객에게 선보이는 실천 판매 과정을 운영해 상품성과 고객 반응 등을 확인하고 핵심 항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청년마루 및 청년마루 사업을 비롯해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모집은 9월 1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 청년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은 9월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외식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8곳 내실 강화

사업 추진·예산 집행 현황 점검 참여자 관리·활동 실태 등 확인

남원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5개소와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참여자 관리 및 활동 실태 △근로 및 활동 관련 서류 관리 △수행기관 운영 전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은 수행기관과 공유해 사업의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모두의 성평등”

유공자 22명 표창·퍼포먼스 진행

순창군이 지난 3일 군민예술회관에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 이상순 전북여성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여성단체 회원, 읍·면 주민,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게 순창군수 표창이 수여됐으며 수상자는 여성단체 관계자 10명, 읍·면 추천 유공자 11명, 공무원 1명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올해 양성평등 슬로건인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진행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기념식 이후에는 양영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내일도 행복한 양성평등’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과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특강을 펼쳐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양성평등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의회 “삼례시장 활성화, 구도심 회복 거점”

상인회장단·완주군 간담회

완주군의의회 이진영 운영위원장이 지난 3일 완주군의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롭게 선출된 삼례시장 상인회장단 및 완주군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삼례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삼례시장 상인회장단과 시장 운영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계부서와 함께 삼례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구도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삼례시장이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해온 만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례시장이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진영 위원장

특히 시장 이용 환경 개선과 방문객 유입 확대를 비롯해 삼례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주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구도심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관계부서에서도 이날 제시된 상인들의 의견과 현장의 여건을 공유하고, 삼례시장과 구도심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영 운영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상인회장단,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저소득 가정에 수정과 기탁

김제시는 지난 4일 부시장실에서 백산인삼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190만 원 상당의 수정과 10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현서 부시장과 김태엽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수정과는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은 4대째 가업을 이어 인삼 농사를 짓고 있으며, 홍삼액과 인삼 식혜, 인삼 수정과 등 다양한 인삼 제품을 생산하고 HACCP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홍삼액 등을 후원해 왔으며, 2023년부터 홍삼액과 인삼식혜, 수정과 등 다양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진안읍 착한가게 51호점에 묵밥앤국수 동참

진안읍 진안읍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이 또 한 번 이어졌다.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전현희, 민간위원장 이우석)는 지난 4일 진안읍 은천리 소재 '묵밥앤국수'를 방문해 착한가게 51호점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매월 3만원 이상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은천리 '묵밥앤국수'는 착한가게 동참을 계기로 음식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에도 함께하게 됐다. 특히 이번 현판 전달은 진안읍 착한가게가 50호점을 넘어 51호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 중앙동지사협, 추석 맞이 명절꾸러미 전달

이웃사랑 실천 앞장

군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영란, 민간위원장 김성호)는 지난 4일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명절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꾸러미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명절을 홀로 보내거나 식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명절꾸러미에는 추석 명절에 필요한 과일, 송편, 한과 등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정성껏 담아 전달했다.

김성호 민간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나눔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시기동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에 밀반찬 나눔

시기동 50가구 돌봄

정읍시 시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점순)가 지난 4일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50가구에 밀반찬을 전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돌봄을 실천했다.

유점순 회장과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밀반찬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전하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

회원들이 직접 찾은 가정에서는 밀반찬을 전달한 뒤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다. 정겨운

말벗이 돼주며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폈다.

전체 지원 가구 가운데 30가구는 우체국 돌봄활동과 연계해 밀반찬을 당일 전달했다.

유점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시기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양파생산자연합회, 양파 400망 기부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지난 4일 남원시양파생산자연합회(회장 황길성)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양파 400망(한가액 4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양파 400망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38개소(남원사회복지관 등)에 안전하게 배부 완료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과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큰 도움이 되었

다.

이번 기탁식은 앞서 전달된 후원 물품의 뜻깊은 나눔을 기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시청에서 양종모 남원시장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원시양파생산자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읍지사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병섭, 민간위원장 임진웅)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고창읍 대양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 등으로 집 안팎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은 대상 가구를 찾아 노후 담장을 개보수하고 집 안팎에 쌓인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정리하는 한편, 지붕 빗물받이를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자는 “혼자서는 집 안팎을 정리하고 고치기가 어려웠는데,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편한 곳까지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동상면 지역사회사랑봉사단 도로변 국화 화분 정비

완주군 동상면 지역사회사랑봉사단(단장 백용기)이 가을을 맞아 동상면 소재지 일대에 국화를 심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동상면 소재지 도로변의 무단주차를 막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에게 경쾌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봉사단원들은 소재지 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놓고 노란 국화를 정성껏 심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했다. 화분에 심은 국화는 가을 개화기에 맞춰 화사한 풍경을 연출하며 동상면의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전망이다.

백용기 단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봉사단원들과 함께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익산시·봉사단체 크레파스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환경 개선

익산시가 민간 봉사단체와 손잡고 고독사 위험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익산시는 봉사단체 크레파스(회장 변원걸)와 협력해 이웃연결단 모니터링 대상 가구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5가구에 도배 시공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독사 위험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1월까지 총 300만 원 상당의 도배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웃연결단의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크레파스는 도배 시공을 맡는다. 공공의 돌봄 체계와 민간 봉사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변원걸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더운 여름

안전한 차량 관리법

자동차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폭발성 물건 두지 않기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폭염에도 안전할수있는 자동차 관리 방법!

01

냉각수
점검하기

02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03

배터리
점검하기

〈一事一言〉



대한방직 개발 9월 28일, 전주의 원칙을 세울 때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6조원 개발 앞에 사업능력조차 확인 못한 전주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한복판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오랫동안 전주의 미래를 둘러싼 뜨거운 기대와 우려의 중심에 서 있었다. 470m 높이의 초고층 타워와 초대형 복합쇼핑몰, 대단지 공동주택을 아우르는 6조 원 규모의 개발 청사진은 도심 재창조라는 장밋빛 전망을 품었다. 반면, 과도한 민간 개발이 익 보장, 교통·환경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이라는 거친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 온 이 거대한 논란은, 오는 9월 28일, 비로소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한다. 전주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행정적 마지노선이 바로 9월 28일이다. 비록 이날이 지난다고 해서 법적으로 주택법상 사업승인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주시가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끌며 사업자의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엄중한 행정적 경고음임은 명백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 주체인 자광의 사업 이행 능력과 재무 건전성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최근 조지훈 전주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6조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초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관청조차 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참담하다. 개발

사업은 화려한 조감도나 말뿐인 경제효과라는 청사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토지를 담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확실한 시공사를 선정해 첫 삽을 뜰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 핵심이다.

현재 자광의 현실은 절망적이다.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조차 내지 못해 전주시가 자광 소유의 부지를 압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마저 위태로운 PF 자금을 얹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F 대출이 좌초될 경우, 민간 개발은 물론 전주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마저 풍비박산 난다는 뜻이다. 벼랑 끝에 선 민간 업자의 사정에 전주시의 미래 도시구조 전체가 담보 잡힌 꼴이다.

자광의 시간표 아닌 '전주의 미래'가 판단 기준돼야

이제 전주시는 질문의 본질을 바뀌어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끝났다. 이제 '누가, 어떤 검증된 능력과 도덕적 책임을 갖고 개발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는 한 기업의 사유재산을 넘어 전주의 향후 100년 도시 지형을 결정짓는 핵심 공간이다. 특정 기업의 자금난과 요구에 맞춰 행정의 원칙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9월 28일 착공 시한이 지난 후 전주시가 보여줄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자광이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전주시는 주저 없이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어렵다고 해서 착공기한을 연장해 주고, 새로운 조건을 붙여 협약을 유지하며, 기존 도시계획 변경으로 부여한 파격적 혜택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식의 구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행정의 신뢰는 엄혹한 순간에 원칙을 고수할 때 비로소 바로 선다.

사업자 이행 능력 상실 시 특혜 세습 끊고 원점 재검토하라

만약 기존 사업이 좌초되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면 기준은 더욱 명확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를 전제로 수립된 용적률 완화와 개발 조건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무혈입성하듯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자가 바뀐다면 도시관리계획을 이전 상태로 환원한 뒤, 공공기여와 교통대책을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업자에게 퍼준 특혜가 시장에서 거러되는 부당한 권리로 전락하는 악선례를 남기게 된다. 470m 타워 역시 성역이 아니다. 타워를 위해 전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발전을 위해 타워가 필요한지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오는 9월 28일은 그래서 단순한 협약상의 날짜가 아니다. 수년간 이어진 대한방직 개발 논란에서 전주시가 누구를 중심에 놓고 행정을 펼칠 것인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사업자를 살리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업을 무조건 무산시키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전주의 미래를 가장 우선에 두는 냉정한 판단이다.

전주시는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자광의 시간표에 전주의 미래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전주의 시간표에 맞는 사업자와 개발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다.

9월 28일, 전주가 세워야 할 것은 470m 타워보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원칙이다.

사 설

전주시설공단은 시장의 선거조직이 아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연상 이사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범기 전 전주시장에 대한 지지를 독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가 관련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당시 회식 참석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이사장은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우 전시장의 재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 번 더'라는 건배사를 하고,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우 전시장 지지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아직 수사 단계인 만큼 협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다. 기관장은 직원들의 인사와 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면 단순한 개인적 정치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이 이사장은 우범기 전 시장 재임 당시 임명됐다. 경찰은 건배사 한마디나 문자 몇 건에 그치지 말고 공단 내부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직원들에게 여론조사 참여나 지지를 요구했는지,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파하도록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주시 역시 수사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은 경찰이 판단하지만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조직 기강은 전주시가 책임져야 한다. 다만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보복성 조치를 해셔도 안 된다. 오직 사실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기업 기관장의 충성 대상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시장의 사람도, 어느 후보의 선거조직도 아니다.

경찰은 이번 의혹의 실체와 조직적 선거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오늘의시

너의 하늘을 보아 / 박노해

네가 자주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주경야독으로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됐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ㅣ독자투고ㅣ

외국인 무면허 운전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무면허 운전 사

례가 발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

위이다. 운전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 제도나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기 전 본인의 면허가 국내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

국인 주민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주민들 또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외국인 주민과 고용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혜인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 TIMES

전북타임스신문

전북의 오늘, 전북타임스와 함께 ..



김제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빈틈없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접종 지원 독감·HPV 지원대상 확대 대상포진 사백신 첫 도입

김제시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2026년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지역사회 면역망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시는 보건소를 든든한 방역 거점으로 삼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관내 49개 지정 위탁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시민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상포진 사백신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혜택을 크게 늘려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며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보건 행정을 적극 펼치는 중이다.

인플루엔자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대폭 넓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겨울철 독감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까지 전격 확대했다.

청소년층은 학교와 학원 등 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집단생활을 수반하므로, 감염병 노출 빈도와 상호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

이번 접종 대상자 확대는 교실 내 집단 감염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에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포함시켰다.

흔히 여성 질환으로만 인식되기 쉬운 HPV는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식기암, 항문암,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HPV의 특성상, 남성을 배제한 반쪽짜리 방역으로는 바이러스의 상호 감염 고리를 끊고 완전한 예방 효과를 거두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전격적인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는 남녀 청소년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남성 청소년 개인의 암 예방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집단 면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포진 유·무료 예방접종 실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악명 높은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 저하와 맞물려 발병률이 급증하는 대표적인 고령층 건강 위험 질환이다.

어릴 때 감염된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신경을 타고 올라와 신경통과 피부 수포를 유발하는데, 그 통증의 강도가 출산이나 만성 암 통증보다도 심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치명적으로 떨어뜨린다.

특히 치료 이후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만성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한 지역사회 면역망을 구축하는 대상포진 유·무료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무료 접종은 김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백신 1회 접종을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유료 접종은 50세 이상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생백신(500명)에 더해 효능이 뛰어난 사백신(200명)을 올해 처음으로 추가 도입했다.

지난 5월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 총 700명의 접종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예약자들은 배정된 일정에 따라 5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마감했다.

다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기존에 생백신을 맞았던 시민은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이번에 도입된 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사백신은 완전한 면역력을 형성하기 위해 총 2회 접종이 필수적이지만, 이번 시 지원 사업에서는 1회 차 접종 비용만 지원된다.

따라서 사백신을 선택해 1차 접종을 마친 시민은 온전한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 추후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영유아 접종 지원 및 초·중학 입학생 전수 관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0세부터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수두, 로타바이러스 등 총 19종의 백신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국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세심한 밀착 관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홍보 활동도 한층 더 강화했다.

아울러 상반기 집단생활을 시작한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접종을 적극 독려해 교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르신, 고위험군 성인 접종 및 코로나 19 예방

65세 이상 어르신(1961. 12. 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과 매년 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을 체계적으로 안내·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야외활동이 잦은 농부 등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연중 진행) 예방접종을 집중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화이자·모더나)의 경우, 당초 4월까지였던 접종 기간을 6월까지로 전격 연장해 운영(마감)함으로써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촘촘히 보강하고 중증화 및 사망률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예방접종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전체의 면역 장벽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복지”라며,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수요가 높았던 대상포진 사백신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단 한 명의 시민

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도민과 함께 하는
참 언론,
전북타임스

도민중심보도 · 공정한 시선 · 미래지향

광고, 구독문의 : 063-282-9600~3
홈페이지: www.jeonbuktimes.co.kr